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9월(제63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우스키 문화자산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부각시킬 기회!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추진 우스키시**



오이타현 남동부에 위치한 우스키(臼杵)시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양조업과 전통 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유기농, 로컬 푸드 등 매력적인 식문화가 가득한 마을입니다. 이에 우스키시에서는 이러한 식문화를 보존 및 발전시키고 새로운 식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21 국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음식 분야 가입에 도전합니다.

올해는 도시 선정을 위해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연례총회'가 열리는 만큼 우스키시는 가입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내왔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우스키시 식문화가 호평을 받아 일본 국내 추천 도시로 선정되었고 유네스코 본부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네스코 본부는 오는 10월 말 창의도시 지정 도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 음식 분야〉  
UNESCO's City of Gastronomy, 食文化創造都市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가 가진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세부 분야로는 문학, 공예와 민속예술, 음악, 디자인, 미디어 아트, 음식, 영화의 7개 창의 분야가 있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느긋하고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  
**자연과 온천의 마을 고코노에정**

오이타현 중서부에 위치한 고코노에(九重)정에는 아소구주(阿蘇くじゅう)국립공원과 야바히타히코산(耶馬日田英彦山)국정공원의 일부가 속해있습니다. 산과 폭포가 계절마다 모습을 바꾸는 아름다운 고코노에의 대자연을 둘러보세요.



고코노에 "유메(꿈)" 현수교 (九重"夢"大吊橋)

해발 777m, 길이 390m, 높이 173m로 일본에서 가장 높은 보행자 전용 현수교이다. 관람 포인트는 '신도노타키 (震動の滝).'



다데와라 습원 (タデ原湿原)

면적 38ha, 해발 1,000m에 위치한 일본 최대 규모의 중간 습원으로 계절꽃과 나무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고코노에 "유메" 온천지 (九重"夢"温泉郷)

'온천현 오이타'라는 명칭에 맞게 풍부한 용출량을 자랑하며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효능을 가진 온천을 만날 수 있다.



마스코트 캐릭터 '미야짱' (マスコットキャラクターミヤちゃん)

구주 연산의 초여름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일본 고유종 철쭉 '미야마키리시마(ミヤマキリシマ)'의 요정이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9월(제63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베틀의 유황 냄새 속에서 또 다른 향기를 만나다

## 오이타 향수 박물관 베틀시 別府市

‘베틀’ 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뜨거운 온천과 솟아오르는 온천 연기, 그리고 유황 냄새가 떠오른다. 온천 특유의 유황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비위가 약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유황은 그저 썩은 계란 냄새처럼 느껴져 괴롭기도 하다. 이 욱고 온몸에 유황 냄새가 배고 코가 마비되어 더 이상 아무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됐을 무렵, 기분 전환을 위해 가야 할 곳이 있다. 다채로운 향들로 막혀있던 코를 뽕 뚫을 수 있는 오늘의 장소, ‘오이타 향수 박물관(大分香の博物館)’이다.

베틀대학역(別府大学駅)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베틀 대학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6년에 개관했던 ‘오이타 향기의 숲 박물관(大分香りの森博物館)’의 소장품을 이어받아 지난 2007년에 오픈했다. ‘향기(香り), 향수’를 테마로 한 박물관은 일본 내 두 곳 뿐(오이타(大分,) 시즈오카(静岡) 소재)인 만큼 쉽게 볼 수 없는 특색있는 전시품도 관람할 수 있다. 3층 건물인 이곳은 1, 2층이 전시장, 3층이 체험 공간으로 층마다 전시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어 천연 향료, 향기의 역사, 변천사 등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전시 판넬의 내용이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 영, 중국어로 간단히 번역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도 이해를 하며 심도있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특히 눈에 띈다.



1층

## 향수 제품 갤러리 (Fragrance Product Gallery)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식물성 향료와 그 향을 추출하는 오래된 기계, 그리고 몇 가지 식물 시향 샘플이 전시되어 있다(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향 불가). 또한 모양이 오르간을 닮아 ‘오르간’이라 불리는 조향대와 1층 전시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각국의 향수 컬렉션을 볼 수 있다. 전설적인 향수 샤넬의 ‘No.5’를 비롯하여 이름만 들어도 아는 브랜드(조르지오 아르마니, 임생로랑, 크리스찬 디올, 록시땅, 랑방 등)의 역대 향수들과 향수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FiFi 어워드’ 수상 제품들도 한 눈에 볼 수 있어 향수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행복한 전시공간이 되리라 생각한다.



## 뮤지엄샵, 카페 사산봉 (Museum Shop, Café Ca Sent Bon)

박물관 건물 1층에 위치한 뮤지엄샵에서는 오이타 향수 박물관 오리지널 향수 ‘카보스 오드 뚜왈렛(Kabosu eau de toilette)’을 포함한 다양한 향수와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바로 옆 카페 사산봉에서는 허브티와 런치를 즐길 수 있는데 런치가 정말 맛있으니 꼭 먹어보기를 추천한다!

또한, 온천의 마을 베틀답게 카페 옆 허브 가든에서는 무료로 천연온천 족욕도 즐길 수 있다(개인타올 지참 요망).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9월(제63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2층

## 향수 역사 갤러리 (Fragrance History Gallery)

인간과 향수의 관계, 향수의 역사와 변천사에 관해 전시되어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알코올이 사용된 최초의 향수는 헝가리 왕비가 사용했던 일명 ‘헝가리 왕비의 물’이라 불리는 것으로, 1370년 무렵 사용되었다고 추측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외에도 일본의 향수 문화를 포함해 유럽권 박물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아시아권 향기의 역사 및 관련 물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백제의 ‘향로’도 볼 수 있어(복제품) 괜시리 반가운 기분이 드는 건 덤이다.

3층

## 체험존 (Experience & Healing Gallery)

향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편안한 의자에 앉아 향을 맡으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아로마 테라피(현재는 코로나19로 중지)와 조향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조향 체험은 향수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흔치 않은 경험인 만큼, 한국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코로나 이전부터 많은 한국인이 이곳을 찾아 체험을 한 후기를 블로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향 체험 시에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 체험비 : 2,500엔(완성한 향수 30ml 제공)
- 소요시간 : 약 40분



### ▲ 뮤지엄샵에서 판매하는 오이타 한정 제품과 카페 사산봉의 시그니처 샐러드(런치)

한국에는 아직 향수 박물관이 없는 만큼 향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오이타 향수 박물관 견학은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향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벵푸를 방문한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 둘러보며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듯하다.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iota.jp)

### - 오이타 향수 박물관 (大分香りの博物館)

주소 : 別府市北石垣48-1(〒874-0915)

운영시간 : 10:00~18:00

입장료 : 어른 500엔, 고등학생~대학생 240엔,  
초등학생~중학생 200엔

문의전화 : 0977-27-7272(일본어 대응)

※ 12월 31일~1월 3일은 박물관 휴관

※ 카페 사산봉은 매주 일요일 휴무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9월(제63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8화

<특집> 노지는 어찌다  
일본어를 배우게됐나 ③  
- 마지막화 -



한창 일본어를 배우던 시기에  
(훈혈이라 할지라도) 일본인과 처음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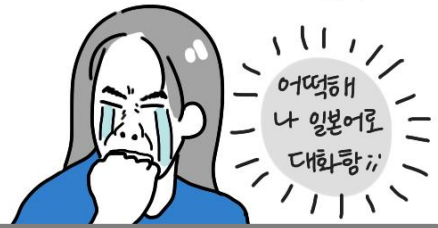
몹시 흥분한 나는 할수있는 일본어를  
종동원하여 S에게 말을 걸었는데,



통.. 통했다 ...!



몇마디 안됐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본어로 대화를 했다는 기쁨은  
정말이지 ... 말로 표현할수가 없었고



언젠가 S를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좀더 유창한 일본어로 말을  
걸어보겠다며 일본어 공부에 전념하러보니



어느새 대학에서도 일본어를 전공하고  
일본에서 일을 하고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노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